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 지역 확대 추진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로 인한 급수체계 전면 개편 필요성 대두 익산시민 1000명 대상 조사... 광역상수도 전환 찬성 과반 넘겨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공급 전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과반 이상이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익산시의 먹는 물 공급 정책을 결정짓기 위해 마련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방식(ARS)과 모바일 조사 참여링크를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익산시 수돗물 공급체계 적합 방안을 묻는 질문에 57.2%가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자체정수장 체계를 유지하는 의견은 38.6%였다.

현재 익산 지역의 68%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체계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

만 읍면을 제외한 도심권 중심의 나머지 34%는 익산시가 완주 대야저수지 등에서 농업용수를 받아 직접 정수해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 인접 지역에서 100%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이 때문에 '왜 익산시민만 농업용수를 먹어야 하느냐'며 광역상수도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상수도 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대두됐다. 신홍정수장과 금강정수장 시설이 내구연한을 한참 넘긴데다, 1954년 축조된 신홍보조수원지에 70여 년간 퇴적물이 쌓이며 해마다 조류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주 대야저수지부터 익산 신홍정수장까지 물이 흐르는 통로 37km(자연하천 9km 포함) 구간은 가림막 하나 없이 개방돼 있다. 이로 인해 수

로 인근 공장이나 축사 등으로부터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돼왔다.

수질 오염이나 물 부족 등 각종 사고 발생과 관련해 안정적인 대용의 한계에 도달하자 익산시는 상수도 공급체계 전면 개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6년 한 차례와 2019년 두 차례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급수체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시민공청회 자리에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 이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재차 확인했다. 설문 전 광역상수도 전환과 상반되는 '지방상수도 유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공유해 시민의 일관된 총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광역상수도 전환 시 자체정수장을 재건설하는 경우에 비해 요금이나 저렴하고, 대야저수지보다 8.6배 용량이 큰 용담댐은 기상이변에도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서, 대규모 성공취업 박람회 열린다

26~27일 'NS푸드페스타' 현장서 개최... 우수 기업 50여개 참여

익산시가 우수 식품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의 만남을 알선하는 '익산 다이로움-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익산시는 케이(K)-푸드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자 오는 26~27일 열리는 'NS푸드페스타(NS FOOD FESTA in IKSAN)' 현장에서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익산 제4산업단지 내 하림퍼스트키친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주)하림산업과 삼양식품, (주)오리온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우수 기업 등 50여 개사가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해어·메이크

업 컨설팅 등 구직자 취업서비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특히 27일에는 특별행사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예비 취업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분석 경진대회'가 열린다.

현장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익산시 청년일자리센터(063-918-6088,6089)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면 당일채용 상담과 면접이 가능하다.

또한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왕복 셔틀버스 3개 노선을 양일간 4회(9:50, 11:10, 13:00, 15:20) 운영한다.

3개 노선은 △익산역-원광대-행사장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근로복지공단-행사장 △모현동행정복지센터-모현시립도서관-행사장으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김천시에서 농수특산물 판매행사 성료

총 45개 품목 · 23개 업체 참여 · 4900만원 판매 실적

군산시는 지난 9일 자매도시 김천시에서 진행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시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열렸으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4 김천포도축제' 행사장에서 열렸다.

현장발표, 장아찌 등 45개 품목, 2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전 주문을 포함해 총 3,031세트, 490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는 '2024 김천포도축제' 행사장에서 현장 판매가 진행되어 김천시 민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에게 군산



군산시 농수특산물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린 것도 또 하나의 성과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올해로 16회째 농수특산물 교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캠페인' 진행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캠페인'에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군산 금빛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과 김경자, 박경태 시의원, 군산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어린이들이 통학 중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에서 교통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우민 의장은 "모두가 함께 협력하



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군산시의회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익산으로 놀러오세요'

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 · 왕궁리유적 · 보석박물관 등서 다양한 행사 진행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시는 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를 비롯해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만경강문화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5일·18일에 △미륵사지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만경강 문화관 등 5개 관광지에서 방문 인증 이벤트 운영한다. 방문 인증사진을 개인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등록한 후 이벤트 신청화면(naver.me/5ssmDKo)을 해당 관광지 안내소에 보여주면 익산시 관광캐릭터 '마뽀' 그림책을 받을 수 있다.

왕궁리유적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

지 소원조약돌, 소원쪽지, 미니소원등, 소원죽간쓰기 등 4개의 체험 활동으로 이뤄진 '고백익산에서 소원을 말해봐'를 진행한다. 백제문화유산인 백제왕궁박물관과 왕궁리유적을 즐기며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후 6시에는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더(THE) 달달한 밤' 행사가 이뤄진다. 버스킹 공연, 모래예술클,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떡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

만경강문화관에서는 체험 활동으로 이뤄진 '얼씨구 절씨구, 구월 추석이 왔다구'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15일, 16일, 18일에 진행되며 날짜별로 전통무드등, 자개 거울, 전통 갓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비석치기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준비돼 있다.

또한 주말에는 가을 저녁 익산의 아름다움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도 운영한다.

전주에서 출발하는 '별밤 익산 여행'은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진행 중인 미륵사지를 거쳐 가는 코스로 운영된다. '별밤 익산 시티투어'는 익산 근대역사관에서 출발해 왕궁리 유적과 새롭게 단장한 오포포개나무 등을 방문한다. 예약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야외관광지로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정기 해설 시간을 운영해 관광지와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비석치기와 제기차기

군산시 보건소,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 약국 정보 제공

응급의료포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통해 확인 가능

군산시 보건소는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명절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

화하고 진료 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다.

먼저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상시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보건지소 · 진료소 병 · 의원 및 약국 227개소는 날짜별로 운영하여 추석 연휴에도 불편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